

보도설명자료 (‘19. 10. 2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인현고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교사, 학부모, 주민 등의
공동출자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, 정부의 태양광
보급지원 사업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(조선일보 10.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◇ 인현고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교사, 학부모, 주민 등의 공동출자를
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정부의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는 관계가
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◇ 10월 28일 조선일보 <‘일베’ 발언 인현고 교사 親與 태양광 조합과
교내발전소 지었다>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.

1. 기사내용

□ 학생들 대상 정치편향 언행으로 논란이 된 서울 인현고 교사가 친여
(親與) 태양광 협동조합(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)과 함께 학교 건물에
태양광발전소 건설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□ 인현고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는 교사, 학부모, 주민 등의 공동출자를
통해 추진된 사업으로, 정부의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과는 관계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심진수 과 장(044-203-5370)
최재홍 사무관(044-203-5373)